

1991 연극영화의해

제 9 회

부산연극제



'91. 3. 21 ~ 4. 11

시민회관 소강당

(1일 2회 공연, 오후 5시, 7시30분)

- 주최: 부산직할시 ● 주관: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
- 후원: 문예진흥원 · 한국예총 부산지회 · 부산시 교육위원회
국제신문 · 부산매일신문 · 부산일보 · 기독교 부산방송
KBS 부산방송본부 · (주) 부산문화방송

극단어명 제9회

제9회 부산연극제 참가작

아바돈을 위한 弔曲

('91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임순창 / 제작

오은희 / 작·연출

'91. 3. 26 ▶ 27

시민회관 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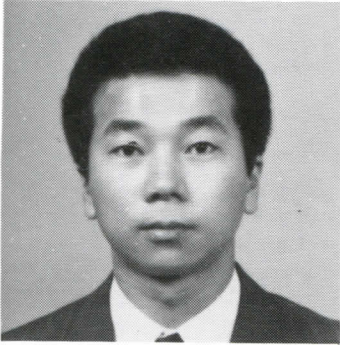
작품 줄거리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어느 곳에 노파에 의해 한 소년이 바이올린렛슨을 받고 있다. 이 소년의 모습은 등이 굽고 주름진 기형의 모습이다. 문득 소년은 바이올린 켜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과거얘기를 들려달라고 노파에게 조르게 되며 노파는 필사적으로 소년의 과거를 숨기려 한다. 그러나 끈질긴 소년의 간청에 의해 노파는 소년이 탄생하게 된 과거얘기를 들려준다.

파괴자라고 명명된 아바돈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오직 혼자 살아남은 女子는 긴 여행 끝에 男子를 만나게 된다. 그 男子에 의해 아직 폐허가 되지 않은 세상이 존재함을 알게 되지만 女子를 아바돈의 첩자라고 의심하는 男子에 의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당한채 男子와 살게 된다.

男子와의 생활속에 아기를 잉태하게 된 女子는 그 아기를 빌미로 男子가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가길 갈망한다. 그러나 男子의 고백에 의해 정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꾸며진 얘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아기를 조산하다 죽고 만다. 男子는 자신의 희망의 산물이었던 아기가 기형의 모습으로 태어나자 절망하게 되고 노파에 의해 마지막으로 男子가 아바돈에 순응한 자임이 밝혀지게 된다. 결국 男子는 기형의 모습인 아기를 노파에게 남겨둔 채 파괴되지 않은 곳을 찾아 떠난다.

少年에게 고통만을 남겨둔 채.



대표/임 순 창

저희 극단 「여명」의 作業방향은 진지한 실험정신과 탐구정신에 있습니다. 실험정신이 바탕이 된 창작육구는 항상 새로운 연극을 무대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제9회 부산연극제 참가작품으로 선정된 「아바돈을 위한 弔曲」은 이런 실험·탐구정신의 하나입니다.

항상 등 굽은 굽사등이 처럼 지역소외란 자격지심으로 지고 살던 중앙문화 중심의 향수병에서 벗어나 중앙과 견주어 당당해질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끊임없는 자기연마에 있다는 것을 곱씹으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창작과 새로운 감각의 무대화작업에 더욱 노력하여 '부산연극' 발전에 기여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극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

등장인물이 그렇고 대사가 그렇고 무대가 그렇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노파의 모습은 현대인간의 신앙심·도덕심의 표상으로 상징된다. 교회나 사찰들이 대형화되어가는 것과 반비례하여 고갈되어지고 있는 신앙심과 도덕심을 생산(잉태)할 수 없는 늙고 주름진 神의 모습으로 상징화 했다. 男子의 모습 역시 기만적이고 유약한 이중적 성격의 인간형으로 묘사했고 女子는 현 시대의 상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無知한 인간형으로 묘사했다. 少年은 바로 이런 기형적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인물로 상징했다.

파괴되어진 언어, 낮과 밤이 뒤틀려진 우주질서, 폐허를 보여주는 앙상한 장치, 아름다움을 상실한 바이올린들……. 이러한 상징적 구조물들이 결합되어 현대를 이끌어 가는 거대한 개인이나 조직체(아바돈)에 의해 말살되어 가는 인류를 표현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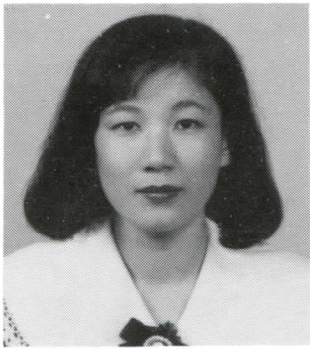
지금 도처에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과연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역시 낮은 목소리로 그 전쟁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의 파멸속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히 하는 일상의 아름다움은 과연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은 이런 의문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한 작품이다.

*아바돈……라틴어의 파괴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神의 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서도 인간을 괴롭히는 왕이나 지배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극단 여명을 도와주시는 분들 부산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연출의 말



작·연출/오 은 희

관념적인 대사를 어떻게 무대화 시킬까?
 少年의 파괴된 언어전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거대한 무대공간 속에 정적인 動線들만으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上記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직적 장치와 파열된 음향, 그로테스크한 조명을 이용했다.
 회원들과의 작품분석에서 너무나 비극적 결말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희망없는 일체의 절망적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므로 해서 관극을 마치고 일어서는 관객 여러분의 가슴에 자문해볼 수 있는 물음표를 남겨 보자고, 희망적인 세계를 위해.
 부족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배우분들과 staff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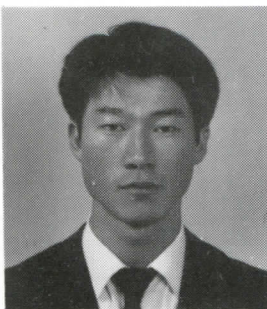
CAST



女/윤 선 희



男/장 하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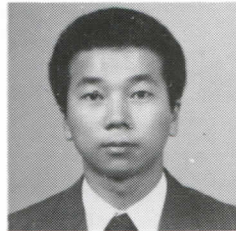


少/정 윤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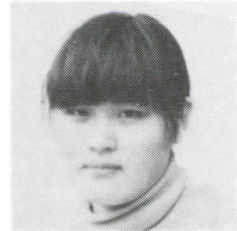


老/김 현 경

STAFF



무대제작/임 순 창



소품/김 신 희



기획/권 영 만



음악/피 형 진



기획/김 미 향



진행/박 명 속

공민 7명 공연보

회	제 목	일 시	장 소	작자·역자	연 출
창단	미시시피씨의 결혼	87. 9. 4~6	시민회관 소극장	뒤렌마트	이용구
영광	미시시피씨의 결혼	87. 9. 18~22	카톨릭센터 소극장	〃	〃
2	해상 아우슈비츠	88. 1. 2~17	가마골 소극장	장창호	권영평
3	상부르공원의 알리스	88. 6. 29~7. 30	가마골 소극장	로맹 가르맹	권영평
4	젼마	88. 12. 9~19	가마골 소극장	전기주	권영평
5	제2의 증언	89. 1. 20~23	시민회관 소극장	로벨또마	조금희
6	포르교환	89. 4. 19~5. 14	가마골 소극장	김상수	권영만
캠페	경멸스런 인간과의 야간대화	90. 1. 1~12	카페 고물상	뒤렌마트	권영만
7	알버트의 다리	90. 6. 7~17	열린 소극장	툼·스토파트	권영평
8	하녀들	90. 7. 12~22	열린 소극장	장·쥬네	조준현
9	까리글라	90. 10. 7~9	시민회관 소극장	A·까뮈	조준현
10	보석과 여인	90. 12. 25~30	열린 소극장	이강백	권영평

뵙고 나서

京 郷 新 聞 1991年1月4日 (金曜日)

만남·사랑·고통·생명의 의미를 우화적으로 묘사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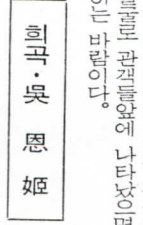
희곡 車凡錫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희곡·吳恩姬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
 이 작품은 「아바돈을 위한 弔曲」의 등장인물들은 내결을 떠나